

“바람이 전하는 소리·새가 전하는 이야기 마음에 품었다 꺼내 놓으니 詩가 되더라”

‘마중물’ 시인 임의진 목사 첫 시집 ‘버드나무와’ 펴내

“시와 문학이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고민을 하곤 했어요. 문학이 고집스러운 어른의 모습으로 비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친구 같은 편안한, 기꺼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던 거죠.”

‘마중물’ 시인 임의진 목사가 첫 시집 ‘버드나무와 별과 구름의 마음’(작은 것이 아름답다)을 펴냈다. 임 목사는 그동안 ‘여행자의 노래’ ‘시인의 노래’ 시리즈 등 음반을 냈고, 수필집 ‘잠꽃 피는 마음’, ‘앵두 익는 마음’ 등 다수의 책을 펴내기도 했지만 시집 간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저자는 “바람이 전하는 소리와 새가 전하는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다”며 “그렇게 가슴에 담은 말을 꺼냈더니 시가 되었노라”고 답했다. 그의 말에선 시인의 감성과 종교인의 사유가 깃든 순례자의 느낌이 묻어났다.

사실, 저자는 시인보다 목사로 더 알려져 있다. (지금은 현장 목회는 하지 않는다) 1995년 강진의 시골 마을 ‘남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나누었던 시 ‘마중물’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될 만큼 전전한 울림을 주었다.

“마중물을 넣고 얼마간 뿔뿔이 남창하게 손에 느껴지는 물의 무게가 오겠다/누군가 먼저 슬픔의 마중물이 되어 준 사람이/우리를 곁에 있다”

당시의 시는 언제고 그가 시인의 길을 가게 되리라는 예언을 담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만의 감성과 철학을 지닌 언어는 어느덧 시간이 흘러 투명한 깊이와 아름다운 감성으로 발전되었다.

“출판사가 저와는 장간 때부터 인연이 있던 곳이에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녹색연합이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합니다”



다. 시집 중이를 가장 얇은 재질지로 사용했던 건 그 때문이죠. 나무를 베지만 말고 심자고 말을 하는데 그 뜻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싶었어요.”

저자는 “오래 묵혀뒀던 시들을 묶어내게 된 것은 이문재와 박남준 시인 등 지인들의 권유가 있었다”며 “자연과 자유 안에서 시를 벗 삼아 지내왔던 시간을 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집의 소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생태와 자연, 여행 등 일상을 노래한 시와 다른 하나는 ‘세월호’로 대변되는 아픔을 응시하는 작품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의 정조는 간결하면서도 맑은, 그러면서도 파스란 사유에 닿아 있다.

“‘버드나무와 별과 구름의 마음’이라는 시집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대상들의 모음”이라고 말하는 그는 “몇 년 전 담양 수북으로 거처를 옮겨 자연과 벗하며 산

다”고 말한다. 이어 “버드나무’는 버드(bird)가 내려앉은 숲을 말하는데, 4대강 공사로 새가 모두 떠나버린 상상의 공간을 상징한다. ‘별과 구름’은 ‘떠돌이 별’이라는 제 아호를 뜻하며 ‘구름’은 아늑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집에 대해 권현형 시인은 “임의진의 시선은 밖을 향해 열려 있으며 동시에 “라싸의 감자맛” 같은 침묵과 기도로 안을 깊이 파고든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평생 경작하던 땅을 내려놓고 홀연히 서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인 ‘히스테리아 시베리아나’의 질문하는 걸음을 닮았다”고 평한다.

저자는 조부와 부친에 이어 3대째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러나 그는 종교와 목사라는 틀로 자신을 규정화하고 싶지 않다. 음악가, 시인, 화가, 여행자 등으로 불리길 원한다.

“순례자의 삶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고전적인 목회자의 상에서 비껴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자유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과 인문학적 사유에 근거한 자유 말이예요.”

저자는 ‘직업인’으로 현재를 살지 않는다. 그의 말대로 “화가이면서 화가가 아닌, 목회자이면서 목회자가 아닌, 사람으로 살고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가 추구하는 진정한 종교인의 삶이다. 문화전당 인근에 ‘메이홀’과 ‘이매진’을 열고 뜻을 함께 하는 이들과 문화와 예술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시는 고독 가운데서 길어 올린 예술이죠. 세계 영향을 주었던 함석헌, 문익환 목사님의 삶이 바로 시인의 자리였어요. 외로운 변방의 삶, 미약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동력을 주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싶습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현순이·김도연

서로 다른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를 만나다



현순이



김도연

10곡 전곡 연주회 도전 ... 광주에서 하루 사이 공연

현순이 5월 2일·김도연 3일...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각기 다른 베토벤 소나타를 만나다.’ 한 작곡가 작품을 모두 연주하는 전곡 연주회는 아티스트들에게는 도전의 무대다. 모두 10곡으로 구성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 역시 많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한번쯤 꿈 꿔 보는 레퍼토리다.

바이올리니스트 현순이, 김도연씨가 4차례에 걸쳐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진행 중이다. 현 씨는 지난해 5월 첫 연주회를 시작했고, 김 씨는 5월 첫 공연을 갖는다. 하루 사이로 열리는 광주 공연 레퍼토리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 두 사람이 해석한 베토벤을 감상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지난해 두 차례 공연을 가졌던 현순이(광주대 교수)씨는 베토벤 프로젝트 세 번째 연주회를 갖는다. 5월 2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에 들려주는 곡은 소나타 4번과 5번 ‘봄’, 그리고 ‘로망스 작품번호 50번’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 연주회와 마찬가지로 피아니스트 서현일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현 교수는 서울대 음대와 대학원을 거쳐 보스턴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석사 학위를, 코네티컷 주립대에서 박사 과정을 수학했다. 미국 유콘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등을 역임했으며 금호현악

4중주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했다. 티켓 가격 일반 2만 원, 학생 1만 원. 문의 010-6331-6834.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씨는 광주와 순천에서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시작한 바 있다.

5월 1일(오후 7시)에는 순천 호아트센터, 5월 3일(오후 7시30분)에는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두 번째 연주회는 오는 9월 7일과 9일 같은 장소에서 열 계획이며 내년 3월과 6월 두 차례 더 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첫 연주회 레퍼토리는 소나타 1번과 4번, 그리고 5번 ‘봄’이다.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김 씨는 호남예술제 등 각종 콩쿠르에서 수상했으며 베를린 국립예술대학에서 수학 후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리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앙상블 베를리나 리더, 앙상블 마주엘 리더로도 활동 중이다.

그녀와 호흡을 맞추는 피아니스트는 베를린 국립예술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며 인연을 맺은 후 오랫동안 친구로, 음악적 파트너로 함께 연주해온 일본의 마미미야씨이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 문의 02-511-19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6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신도원씨 선임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 아티스트 신도원(45·사진)씨를 ‘2016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신도원 예술감독은 홍익대 미술학과, 조선대 미술대학원을 수료했고 9회의 개인전과 ‘광주국제 미디어퍼포먼스 페스티벌’(2012), ‘하정웅 청년작가전 빛전’(2014),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전’(2014) 등에 참가했다. 그는 퍼포먼스와 미디어아트를 병행해 왔고 최근 미디어아트를 통한 입체적 회화 작업을



하고 있다. 신 감독은 ‘2016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주제를 ‘Art Live (살아있는 예술)’로 설정, 현장에서 생생하게 만나는 미디어 아트 축제, 매일 미디어아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라이브 전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 개막식은 오는 5월 18일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개막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문체부, 지역서점 포털 ‘서점온’ 정식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부터 지역서점 포털사이트인 ‘서점온’(서점ON, www.booktown.or.kr)을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점온’은 지역서점의 정보를 통합해 검색할 수 있는 포털서비스로, 전국 2000여개 지역서점의 위치와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지역서점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과 연동해 76개 중대형 지역서점의 보유 도서 재고와 판매 정보도 제공한다. 독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서점온’에 실시간으

로 접속해 주변 지역서점의 상호와 위치, 연락처, 홈페이지 안내, 문화활동, 인기 도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정 책의 제목을 입력하면 그 책의 재고가 있는 중대형 서점의 상호와 위치, 재고 수량,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가 나타난다.

또 서점은 ‘서점온’을 통해 도서의 판매와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서점 간 공동구매, 서점과 도매상·출판사 간의 자동 주문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나는 몸신이 이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

이용식 엄영란 조인희 변우민 MC/정은아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